부산불교, 추운 겨울 자비나눔 이어져

부불대 · 화엄승가회 자비의쌀 나눔
광명사, 김장 및 라면 등 자비 나눔
포교사단 부산, 연탄 · 난방유 지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사찰과 불자들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백미와 김장나눔, 난방유, 연탄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는 11월 18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추진하는 '살기좋은 부산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됐다. 자비의 쌀은 총 6000kg(1800만 원 상당)이며 부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 및 화엄승가회 소속 사찰 불자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마련했다.

자비의 쌀은 부산 남구 관내 8개소 사회복지관 단체에 전달됐다.

학장 범혜 스님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소외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며 "스님들과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전달하는 백미가 배고프고 추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오늘은 기쁜 날"이라며 "나눔 실천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운겨울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진행한 쌀나눔 사진.

△자비실천도량 부산 견강암(주지 향공)은 11월 19일 경내에서 제11회 산사음악회 및 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향공 스님과 법성 스님(태고사 주지), 장제원 사상구 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 구청장,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지역위원장, 윤태한 · 김창석 부산시의원, 김향남 · 김종선 · 김윤경 구의원, 이상규 모라1동장, 이정기 모라동 자치위원장 등 내빈과 지역주민이 동참했부산 사찰과 불자들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백미와 김장나눔, 난방유, 연탄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다.

행사는 1부 색소폰 연주 공연 및 식사로 시작했으며, 2부는 개회선언, 자비물품 나눔 및 장학금 전달식, 봉사상 수여, 3부 행사는 주민 어울림 노래자랑으로 진행됐다.

자비물품나눔은 '노숙자와 이웃이 함께하는 정(情) 나누기'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김장김치 10kg 362박스와 라면 402박스를 사상구 12개 동사무소와 사상구 장애인협회, 지역 50가구 등에 전달했다.

봉사상은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 수상했으며 사상구 구청장상은 배화숙, 국회의원상은 최영순 · 정경옥, 사상구의회의장상은 김둘이 · 최숙자, 모라1동 동장상은 이송이 · 임계남이 수상했다. 이어 장학금은 박채빈 학생(모라중 3) 외 11명에게 각 20만 원 총 240만 원을 전달했다.

향공 스님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주민잔치를 개최했었는데 모두들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봤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다시 한 번 주민분들을 위한 어울림한마당을 열게 되었다"며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정각원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 정각원이 지난 11월 1일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으로 출범했다. (사)부산정각원은 1995년부터 나눔 및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2015년 정각원으로 명명하고 만발공양 및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9월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으며 11월 1일 승인됐다. 이번 행사는 (사)부산정각원 공동주최했으며, 사단법인 승인 후 첫 행사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는 11월 20일 지하 1층 대중공양실에서 '금정구 이웃(다문화, 복지관)과 함께하는 김장김치 자비나눔' 을 진행했다.

광명사는 전달식에서 김장김치 7kg 180박스(배추 1000포기)와 백미 20kg 10포대, 라면 180박스를 부산 금정구 관내 다문화가정과 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광명사 자비나눔 행사에 동참해주신 금정구연합회 회장 고담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내빈들에게 감사한다"며 "오늘 김장김치는 모두의 정성을 모았다. 김치와 성품을 받는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은 11월 19일 부산 개금3동 철로변 마을 일대에서 '2022년도 자비의 연탄 · 동계용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아름누리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송재린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과 포교사,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철로변 마을 15세대 각 가정에 연탄 230장과 난방유를 지원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상, 우수상 이강옥 교수

11월 19일 홍법사서 시상식
장려상 명오 스님 · 임시연

한국불교상담학회(학회장 안양규)가 11월 19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제3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술상 우수상은 논문 'MTD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과 그 활용 방안' 을 발표한 이강옥 교수가 수상했다. 이강옥 교수는 구운몽과 꿈 경험을 활용하는 우울증 수행치료 프로그램(Meditation Theraphy Utilizing Kuwumong and Dream Experience: MTD)을 구안했으며 논문을 통해 손쉬운 활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강옥 교수(가운데), 장려상을 받은 명오 스님(왼쪽), 임시연 상담가.(오른쪽).

이강옥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와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및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이다. 예일대학교 비교문학과, 뉴욕주립 스토니브룩대학교 한국학과의 방문교수로 연구했으며, 한국구비문학회, 한국어문학회, 한국고전문학회, 한국문학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두계학술상(2020), 지훈국학상(2015), 천마학술상(2008), 성산학술상(1999)을 수상했고 교육부 우수학자(2009)로 선정됐다.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운몽과 꿈 경험을 활용하는 우울증 수행치료 프로그램〉과 〈죽음서사를 활용하는 죽음명상 프로그램〉을 구안했으며 일반문학치료최고전문가 자격증(2013)과 문학심리분석상담전문가 자격증(2019)을 취득했다.

장려상은 명오 스님과 임시연 상담가가 수상했다. 명오 스님은 논문 '사경(寫經)과 심신치유에 관한 고찰' 을 통해 사경이 가진 치유효과를 설명했으며, 임시연 상담가는 논문 '중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만다라 명상 프로그램 체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로 수상했다.

안양규 학회장은 "학술상을 제정한 목적은 불교상담의 영향과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불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며 "해가 거듭될수록 훌륭한 논문이 제출되고 있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연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시상식을 위해 도움을 주신 심산 스님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금정불교대 총동문회, 구법 삼보일배

11월 19일, 범어사 경내 일원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서종현, 이하 총동문회)가 11월 19일 경내 일대에서 제5차 구법 삼보일배를 개최했다.

총동문회는 매년 수행을 독려하고 화합과 발심의 장으로 삼보일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삼보일배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렸으며, 범어사 총무국장 범종 스님, 포교국장 눌은 스님을 비롯해 서종현 회장 등 총동문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삼보일배 정진은 범어사 입구에서 입재식을 진행하고 어산교, 일주문을 지나 설법전, 종루, 대웅전 앞까지 이어졌으며 총무국장 범종 스님의 법문 후 회향했다.



포교국장 눌은 스님은 입재식에서 "무릎이 땅에 닿을 때마다 지혜는 금정산보다 높아지고 공덕은 대지보다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서종현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열리지 못한 수행의 장이다. 동문들의 얼굴을 보며 진행하는 삼보일배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모두 건강하게 회향하길 바라며 오늘 삼보일배 수행을 통해 신심은 더욱 깊어지며 업장은 사라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 10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 발표

진오 · 법광 스님 · 김호귀 선정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이 11월 18일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는 학술문화상 부문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 HK 교수, 봉사실천 부문 진오 스님(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포교원력 부문 법광 스님(경남파라미타협회 지도법사)이다.


진오 스님 법광 스님 김호귀 교수

김호귀 교수는 역대 조사의 선어록과 선문답 연구와 번역을 통해 불교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진오 스님은 2000년부터 구미시의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여성인권보호 사업을 시작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스님들을 초청해 자국민 불교활동, 민속축제, 통역지원 병원동행 등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법광 스님은 군포교법사 및 경남 파라미타협회의 운영이사, 지도법사로 13년 동안 활동해 왔으며 청소년 충효사상 및 생명존중사상 고취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2월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13회 울산 차 문화한마당 개최

특별전 '조선 찻사발의 참 얼굴'
울산 차단체 동참, 세미나도

BBS울산불교방송(이진용 사장)은 제13회 울산차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11월 23일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울산차문화한마당은 석정 다례원의 식전행사인 헌공다례시연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인사말, 격려사, 축사, 감사패수여, 축하공연, 학술세미나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통도요 김진량 작가의 특별전시회 '조선 찻사발의 참 얼굴' 이 열렸으며 울산 지역 차 단체들이 동참해 함께 차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다.

시상식에서는 울산 차문화 계승 · 발전의 공로가 큰 손순희 울산광역시차인연합회장, 차선옥 송정 차문화교육원장, 안은순 예다원 오성다도 회장 등 3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진용 BBS울산불교방송사장은 "울산문화한마당은 울산 차문화의 멋을 알리는 축제이자 오랜 역사의 다도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고 지역 차인들의 화합과 차문화 공유에 의미가 있다"며 "참석하신 분들 모두 천천히 차의 향과 맛, 멋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차는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물이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울산의 차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울산의 차 관련 산업들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오늘 소중한 행사를 통하여 다운차를 재현하기 위해 주산지 재배법을 찾아 울산시민의 차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BBS 불교합창단과 무용단, 폴리포니 기타듀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2부 행사인 학술세미나에서는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장이 '신라인의 풍류정신과 한국차문화의 원형' , 강석근 국제언어문학회장이 '매월당 김시습과 울산 · 경주권의 차문화' 를 주제로 발표하고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옹 스님이 총평을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영불교사암聯,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나눔

연탄 및 난방유 지원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통영시 정량동 일대에서 소외 이웃을 위한 난방용품 나누기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용화사 종묵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통영불교거사림회를 비롯한 각 사찰 신도회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겨울 난방지원용품은 연탄 1200장(108만 원)과 난방유 1600리터(280만 원)이며, 통영불교사암연합회와 통영불교거사림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마련했다.

회장 종묵 스님은 "자비나눔 실천을 위해 매년 추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연탄과 난방유를 나눠드리고 있다"며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해드리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수정사 개원법회 봉행

부산 수정사(주지 수혜)가 11월 22일 경내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수혜 스님은 개원 법회를 통해 도심 속에 불자들의 쉼터가 되고 도심포교도량으로 성장 할 것을 발원했다.

법회에는 청암 스님(법음종 종정), 법진 스님(수정사 회주), 주지 수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수혜 스님은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회주 법진 스님께 감사인사를 올린다. 많은 대덕 스님들께서 오신 건 주지 소임 열심히 하라는 응원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부처님법을 등불삼아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포교와 수행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회주 법진 스님은 "재물이 없어도 충분히 보시를 할 수 있다. 자비를 집으로 삼고 인욕행을 옷으로 삼아 수행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음종 종정 청암 스님은 법문을 통해 "비록 법당이 협소해 보이지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셨을 때는 이보다 더 못한 곳에서 계셨다. 불국토를 만들겠다는 굳은 서원으로 정진하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